

‘무안군 → 市 승격’ 큰 걸음

서삼석 의원, 국회서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등 본격화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무안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과 홍문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교육·문화시설 등 개선·확충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 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무안군도 시 승격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때까지 홍성군·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한우협회 무안지부, 소외이웃에 한우 190kg



무안군은 최근 전국한우협회 무안군지부가 취약 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한우 190kg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탁받은 한우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17곳에 전달했다.

김시호 한우협회 무안지부장은 “한우데이를 맞아 질 좋은 한우를 기부하게 됐다”며 “의미있는 나

눔활동이 계속 이어져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준 한우협회 무안군지부에 감사 드린다”며 “모든 군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무안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가을 보내기 아쉽다면 ... 청산도로 가세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는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 청산도 단풍, 한반도서 가장 늦게 물들어 이번 주말 절정

완도가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가을 단풍 예측 지도’를 보면 완도가 한반도에서 단풍이 가장 늦고, 그중에서도 청산도의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청산도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혹시 가을에 대한 목마름이 남아 있다면 청산도 여행이 적격이라고 완도군은 추천했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청마을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걸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연출한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섬 단풍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

고 있다. 올해도 오는 21일 가을 단풍길 출사에 나선다.

완도군은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단풍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해서 단풍길에 조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는 세계적 매력적인 섬이며, 분주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단풍이 드는 청산도에 들러 심신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진도군, 원도심 아리단길 청년 점포 추가 개장

젤린지 숲에 3곳... 대파·울금·검정쌀 활용 음식 판매

진도군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젤린지 숲’ 3곳을 추가로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진도읍 원도심 아리단길 등 골목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젤린지 숲’을 개장했다.

젤린지 숲은 진도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3곳과 캘리 공방 1곳 등이다.

올해 추가로 문을 연 3곳은 진도의 특산물인 진도대파, 울금, 검정쌀을 활용해 진도대파빵, 울금빵, 검정쌀단호박빵, 진도대파국 등을 개발해 판매한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창업에 필요한 창업절차 등의 기본교육,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년점포 젤린지숲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상가



대파빵

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 불갑면 맹자·오룡 마을에 치매 안심마을 사업

영광군은 올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불갑면 안맹리 맹자, 오룡 2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면서 살아가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마을이다.

영광군은 치매 안심마을로 지난해 1개 마을, 올해 2개 마을을 신규 지정했으며 연 1회 이상 선별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안전 환경조성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지정된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 담장벽화 그리기, 가스차단 잠금장치 설치, 현판식 등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담장벽화 그리기 작업에는 마을주민,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치매인식 개선 사업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정희 영광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 및 조기발견 등 치매안심공동체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문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장영주 시집